

# ExxonMobil, 미주지역 순수익 1위

2008년 2/4분기 13.8% 증가 116억8000만달러 ... Petrobras는 3위 등극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가 2008년 2/4분기 미국 및 중남미 지역에서 순수익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경영컨설팅기관 Economica 조사 결과 2008년 2/4분기 Petrobras의 순수익은 전년동기대비 56.3%가 늘어난 55억2000만달러로 평가되면서 ExxonMobil, Chevron Texaco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15대 가운데 미국기업이 13개를 차지한 가운데 ExxonMobil은 13.8% 증가한 116억8000만달러, Chevron Texaco는 11.1% 늘어난 59억8000만달러의 순수익을 나타냈다.

Petrobras 다음으로는 ConocoPhillips가 54억4000만달러로 4위, GE가 50억7000만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순이익 상위 1-4위 모두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기업이다.

Petrobras의 순수익이 급증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와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의 강세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Petrobras가 브라질 정부의 유가 안정대책에 따라 내수시장의 석유 판매가격을 국제가격보다 8% 정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순수익은 Chevron Texaco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기업 가운데는 세계적인 광산개발기업 CVRD가 28억7000만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며 14위에 올랐다. 그러나 CVRD의 순수익은 5.3% 줄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4>